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정성국 연구위원(skjung@bnkfg.com)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시기별로 상이한 트렌드를 보였다. 최근에는 대규모 입지 공급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로, 단순집적에서 연결형 스마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첨단산업 인재확보를 위해 외곽에서 도심으로 입지 측면에서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동남권 산업단지도 규모, 기능, 입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의 핵심기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전반에 확산되도록 청년 창업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업단지 많아

국내 산업단지는 2018년 기준으로 1,207개이다. 동남권의 산업단지 수는 270개로 충청권(292개)을 제외하면 전국 최다이며 다음으로 호남권(203개), 수도권(194개), 대경권(169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¹⁾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동남권에는 11개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며 비중으로는 25%에 달한다.

또한 동남권은 일반산업단지 수가 169개로 수도권(178개)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산업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산업단지 수는 8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공산업단지의 경우 충청권 및 호남권에 전국의 57.8%에 달하는 267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전국 27개중 동남권에 4개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개)

구분	전국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대경권	강원권
국가산업단지	44	11	7	10	6	7	1
일반산업단지	664	169	141	62	178	89	24
농공산업단지	472	86	139	128	1	71	44
도시첨단산업단지	27	4	5	3	9	2	4
소계	1,207	270	292	203	194	169	73

주 : 1) 2018.12월 기준

2) 2개 지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중 아산은 면적이 넓은 수도권으로 구분

*한국수출(서울·인천), 빛그린(광주·전남), 아산(경기·충남), 명지녹산(부산·경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개발 주체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지역(서울 제외)에 최소규모 1만㎡로 지정이 가능하다.

2) 동남권은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생산액이 전국 1위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경남 시군구 중에서는 김해시(31개), 함안군(26개), 창원시(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5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동·서 외곽지역인 강서구(16개), 기장군(13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17개), 북구(9개), 남구(2개)에 2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산업단지내 업체수는 부산이 7,706개로 경남 및 울산 대비 많았으며 고용 규모는 경남이 16만 5,722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울산이 각각 165.1조원 및 675.4억달러로 동남권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이 집적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개, 천㎡, 명, 억원, 십만달러)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업체수	고용	생산	수출
부산	국가산업단지	1	8,841	1,536	30,649	98,390	24,526
	일반산업단지	30	33,590	5,976	61,665	312,139	75,586
	농공산업단지	1	258	26	1,683	-	-
	도시첨단산업단지	3	900	168	2,553	169	-
	소계	35	43,589	7,706	96,550	410,699	100,112
울산	국가산업단지	2	74,383	1,042	107,790	1,594,777	656,244
	일반산업단지	22	15,263	421	15,210	46,045	17,470
	농공산업단지	4	592	107	3,153	10,733	1,669
	소계	28	90,238	1,570	126,153	1,651,555	675,384
경남	국가산업단지	8	61,092	2,579	75,757	660,469	295,539
	일반산업단지	117	63,526	1,996	64,408	150,727	108,098
	농공산업단지	81	11,895	956	24,799	69,664	19,488
	도시첨단산업단지	1	145	1	758	3,519	32,388
	소계	207	136,658	5,532	165,722	884,379	455,512

주 : 1) 2018.12월 기준
 2)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는 면적이 넓은 부산으로 구분
 3) 업체수는 가동업체 기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최근 5년간(2014~2018년) 경남에서는 김해시(9개), 함안군(8개), 양산시(6개), 사천시(6개) 등을 중심으로 45개의 신규 산업 단지가 지정되었으며 동기간 부산은 강서구(4개), 기장군(1개), 그리고 울산은 울주군(4개), 북구(1개)가 새로이 선정되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단지 트렌드 변화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개발목적 등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트렌드를 보였다. 본격적인 개발연대기(1960~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에 따라 동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1980~90년대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과 충청권에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농공산업단지 개발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이 실시되었다.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게임·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 및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대학·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간 융복합 및 고도화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과 새로운 IT·서비스업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입주업종 유연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일정구역에서는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존’ 이 시범도입 되기도 하였다.

산업입지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책 대상	• 계획입지 개발 시·도	• 수도권 내 산업 집중	• 지역적 불균형 심화	• 개별입지 증대 • 첨단산업 입지 공급	• 지식기반산업 입지 공급 • 기존 단지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간 융복합 • 신산업육성 및 확대
정책 기조	• 수출위주 경공업 입지	• 수도권 억제 •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	• 산업단지 내실화 • 농공단지 개발	• 입지유형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 • 구조조정 촉진	•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추진	• ICT융합 • 융복합·신성장 동력·미래산업 육성
산업 구조	• 경공업 우선 정책 • 섬유·합판·전기제품·신발류	•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 석유화학·철강·선박·자동차·기계	•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 • 반도체·전자공업·자동차	•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 반도체·정밀화학·자동차 프로그램 개발	• 지식집약 산업, 미래산업 성장 • 정보통신·게임·바이오산업	• 녹색기술산업 • 첨단 융복합 산업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고	• 울산공업센터 • 수출산업단지	•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수출자유지역	•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 농공단지 • 아파트형 공장	• 산업단지 명칭 변경 • 개발절차 간소화 • 테크노파크	• 도시첨단산업 단지 • 소프트웨어 진흥, 클러스터 시범단지	• 산학융합지구 • 구조구도화 및 노후산업 재생 • 혁신 융복합 단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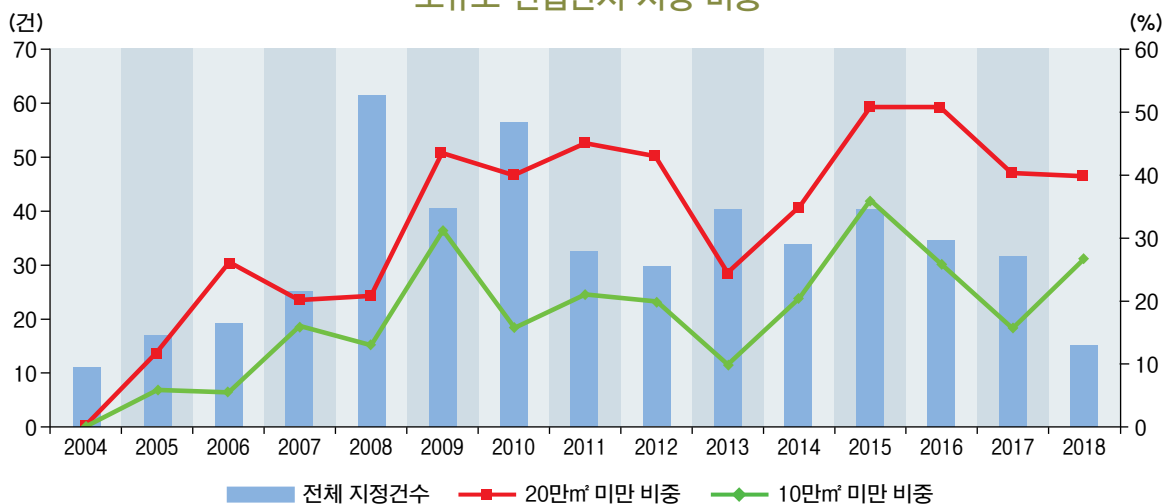
변화 트렌드(1), 대규모 입지 공급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산업입지 공급계획 권한이 이양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와 관련된 특례법이 제정⁴⁾된 2008년 이후 산업단지 지정은 크게 늘어났다.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대규모 면적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소규모 중심으로 개발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전국의 신규지정된 산업단지 중 소규모(20만㎡) 산업단지 비중은 2004~08년에 평균 15.8%에 불과했으나 2009~13년에는 평균 39.5%로 상승하였다. 특히 최근 5개년(2014~18년) 중에는 평균 43.7%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의 경우 2014~18년중 51건의 신규지정이 있었는데 소규모 산업단지(22건) 비중이 43.1%로 나타나는 등 전국과 비슷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지면적 소규모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개발 방식은 향후 사회·경제의 전반적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특화·소량생산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비중



주 : 1) 전국 일반산업단지 기준
 2)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정면적 20만㎡ 미만으로 구분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4)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의 권한을 시·도 단위 지역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와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2008년)되어 통상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약 6개월로 단축되었다.

변화 트렌드(2), 단순집적에서 연결형 스마트 공간으로

정부는 개별공장의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반월·시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1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스마트산단 정책에 대응하여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외에도 김해대동단지 스마트산단 시범사업, 항공 및 조선 산업 관련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산단이 지역의 제조혁신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화 관련 공급기업 육성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동남권 소재 공급기업 현황을 보면 MES(현장자동화·공장운영), ERP(기업자원관리) 등 생산관리 솔루션 부문에 집중도가 높으며 제품 설계, 통합 제어 등 고도화된 영역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체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59.2%)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스마트산단 추진전략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발표자료 (2018.12)

5) 스마트공장 관련 공급기업 현황

구분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공급기업수	319	189	59	25	12	22

자료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변화 트렌드(3), 첨단산업 인재확보를 위해 외곽에서 도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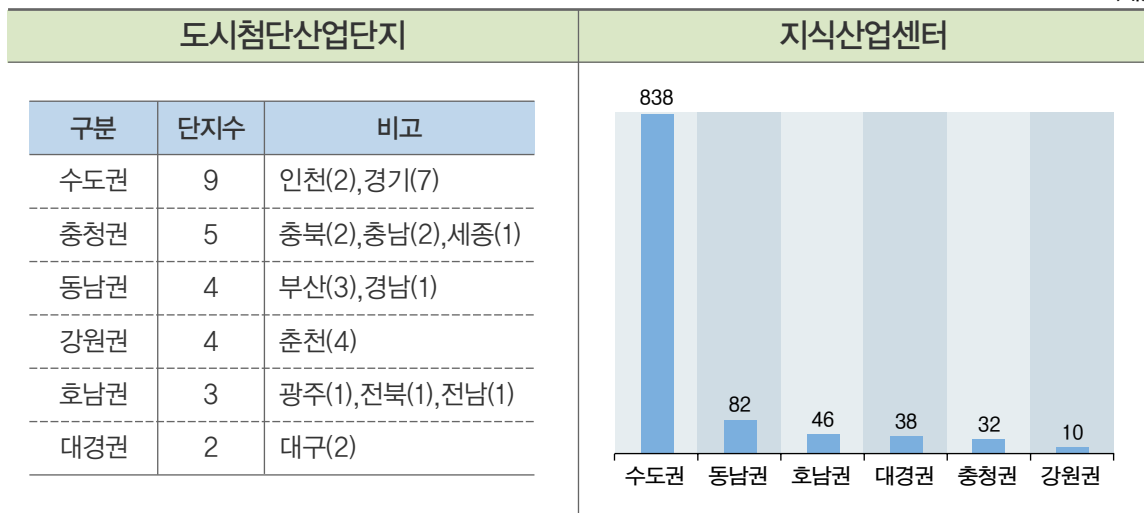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지능화 및 첨단화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형 창의·융합 인재의 확보여부는 기업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심 외곽에 산업단지가 입지할 경우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접근성 등 양호한 근무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인재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심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⁶⁾ 및 지식산업센터⁷⁾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동남권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 3개(회동·석대, 에코텔타, 모라), 경남 1개(창원텐소) 등 4개이며 지식산업센터는 부산 44개, 울산 6개, 경남 32개 등 82개가 지정되어 있다. 동남권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수가 전국 대비 약 10~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보인다.

권역별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현황

(개)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 On)

6) 일반산업단지는 최소 3만㎡이상 지정되어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최소 1만㎡이상 지정 가능

7)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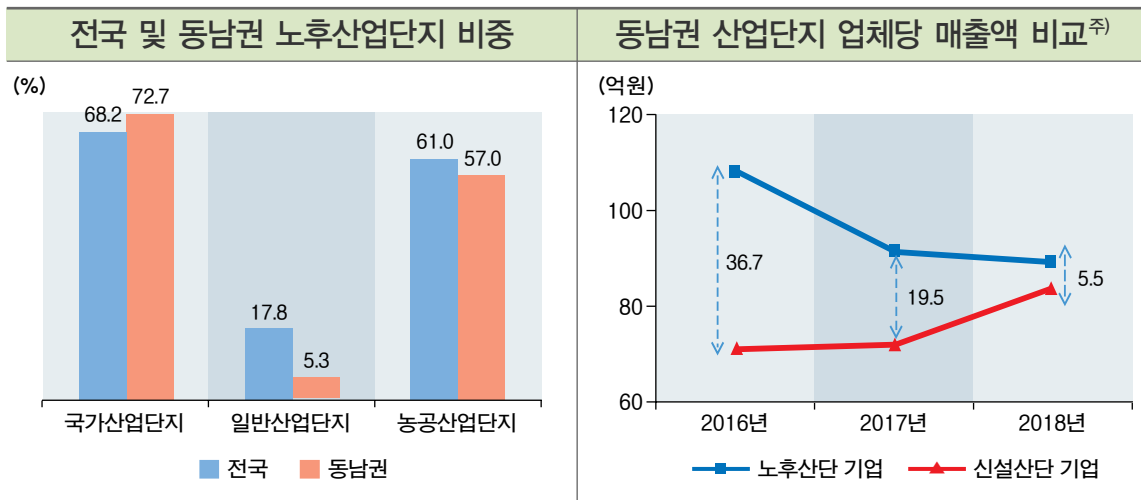
노후산단 고도화, 청년창업 연계, 거버너스 효율화 서둘러야

현재 산업단지는 규모, 기능, 입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핵심기지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노후 산업단지⁸⁾ 고도화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동남권은 국가 산업단지 중심으로 노후화 산업단지 비중이 높아 도로·환경정화시설이 낙후되고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입주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우수 기업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동남권 노후산단의 생산성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2016년 107.5억원에서 2018년에는 88.9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신설산단과의 업체당 매출액 격차가 2016년 36.7억원에서 2018년에는 5.5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미공개한 일부 신설산단⁹⁾ 실적까지 포함한다면 경영성과 차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산업단지 현황



주 : 업체당 생산액 비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산업단지의 가동업체 기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8) 노후산업단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준시점을 '착공후 20년 경과' (산업집적법, 노후거점산단법) 또는 '준공후 20년 경과' (산업입지법)로 다르게 정의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는 착공후 20년으로 구분
 9) 가동업체수가 2개 이하인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업체 정보보호를 위해 자료 미공개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 창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젊은층이 산업 단지로 모여 창업에 대한 열기·도전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직접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지역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계획을¹⁰⁾ 발표하였으며 동남권에서는 창원, 명지·녹산,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대학내 유휴시설에 기업이 입주하는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소재 부경대학교가 사업대상 2개교에 포함되었다. 동 사업이 결실을 맺어 청년층이 보유한 혁신·창의성이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 거버넌스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내 시설 구역 변경, 업종 제한 등은 현재 중앙정부의 관리 권한이지만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된 산업단지 정책에 일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관련 산업단지 주요 정책

구분	대상	지원 방향	비고
청년친화형 산단	창원국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충 지원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편의시설 확대	2018.6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고도화·다각화 및 혁신 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	2018.12
	미포국가 산업단지	근로환경(안전) 개선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2018.12
스마트 선도 산단	창원국가 산업단지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미래형 산단 등 3대 혁신분야에 대한 사업 지원	2019.2
대학 산학연 협력단지	부경대학교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도심형 입지와 산학협력력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기회 제공	2019.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10)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되도록 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② 정부재정 투입 확대, ③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6월에 6개 선도 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2018.12월에는 8곳을 선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방침이다.

[참고] 동남권 산업단지 동향

■ 생산 : 2018년중 전년대비 부산(15.0%) · 울산(9.9%) 증가, 경남(-13.4%)은 감소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	36.9	35.7	41.1
울산	142.6	150.2	165.2
경남	90.9	102.1	88.4

■ 수출 : 전년대비 부산(18.4%) · 울산(2.9%) 증가, 경남(-10.7%)은 감소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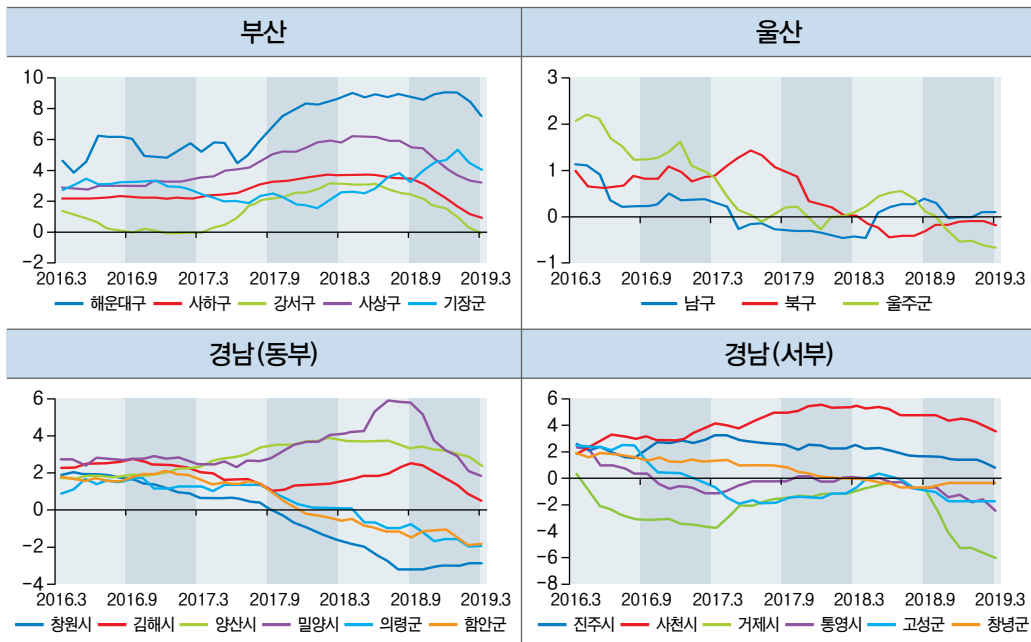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	8.9	8.5	10.0
울산	59.1	65.7	67.5
경남	34.9	51.0	45.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업용지 지가변동률

- (부산) 해운대구 · 기장군은 상승, 강서구는 하락
- (울산) 남구는 상승, 북구 · 울주군은 하락
- (경남) 사천 · 밀양시는 상승, 창원 · 거제시는 하락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감정원

[참고문헌]

경기연구원, “경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 방안”, 2017.4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노후산업단지 실태 및 관리방안”, 2018.5
 교육부, “지역기업 혁신생태계 보도자료”, 2019.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www.industryland.or.kr
 국토연구원,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2018.10
 산업연구원, “스마트공장산업의 한·중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8.4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발표자료”, 2018.1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www.smart-factory.kr
 팩토리온(FactoryOn), www.femis.go.kr
 한국감정원, www.kab.co.kr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산업단지요람”
 _____,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7.11
 _____,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BNK BNK금융지주
 제2019-05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9년 5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